‘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 오늘 폐막 한·중·일 ‘문화동행’ 대장정 마무리

순천시, 中 소흥·돈황시·日 기타큐슈시와 1년간 교류…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서 폐막식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이 개막 후 19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순천시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마지막을 장식할 폐막식을 19일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개최한다.

폐막식은 ‘다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관현악 그룹인 앙상블 보니와 순천 출신의 국악인이자 최근에 방송된 ‘조선판스타’의 우승자인 김산옥의 협업 공연을 시작으로, 순천시립합창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샌드아트의 융복합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어 올해 1년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과를 담은 영상과 중국 소흥시와 돈황시, 일본 기타큐슈시의 문화공연 영상으로 꾸며진다. 남문터 광장의 밤하늘을 수놓을 플라잉 피아노 퍼포먼스와 지역문화예술인, 팝페라 그룹의 합동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퓨전국악 밴드 억스(AUX)의 크로스 오버 공연과 레이저 아트 퍼포먼스로 장내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국 돈황시의 명소인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우견돈황’ 공연과 일본 기타큐슈시의 문화관광시설을 배경으로 한 기타큐슈 지역 예술가의 합동 공연은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문학·사진 작가의 교류사업인 ‘아시아아트인’과 청소년 교류 사업의 성과 사진전, 남문터 야외 광장에서 진행하는 190일간의 행사 사진전을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대면 온라인 교류를 통해 이번 폐막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폐막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올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도 3국 4개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는 매년 한·중·일 대표 도시를 선정해 각국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중국 소흥·돈황시와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올해 1년간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관광시장 회복 박차

이동형 안내소 운영 등

광양시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관광시장 회복과 새로운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양시는 (사)광양시관광협의회와 함께 순천, 여수 등 인근 지자체의 유동인구 밀집 장소에 이동형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광양 관광 홍보에 나섰다.

이동형 관광안내소는 광양의 관광 이미지를 랩핑한 차량으로 홍보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과 각종 광고지를 비치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홍보 수단이다.

시는 광양의 9경 9미를 경쾌한 랩과 트렌디한 이미지로 제작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광양에 와야 할 10가지 이유,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광양여행 등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감성 가득한 광양관광 슬로건과 BI를 담은 마스크, 물티슈 등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였다.

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생태, 자연 등과 같은 대안관광이 부상하고 최근 개방한 배알도 섬 정원, 별 헤는 다리 등이 주목받는 가운데 광양 고유의 콘텐츠를 내세운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단거리 일상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해 수도권 등 원거리 도시보다 인근 도시를 공략하는 한편, 배알도 등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내 대표 관광지에서도 현장 마케팅을 펼쳐 방문객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공모사업 ‘전국 최다’

보림제다·우리원·북부농협 등 3곳에 40억 투입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소가 선정되면서 친환경농업 선도지의 위용을 과시했다.

공모에 선정된 곳은 보성읍 ‘보림제다’와 벌교읍 ‘우리원’, 복내면 ‘북부농업협동조합’ 등 3개소로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개소당 최대 2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지구 농경지 10ha 이상 및 참여농가 10호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생산자단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보성군은 2016년 1개소, 2017년 1개소, 2018년 1개소, 2019년 2개소 등 현재까지 5개소가 선정됐다.

군은 2022년 공모사업에서 신청한 3개소 모두가 선정됨에 따라 관내 친환경 농업 기반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선정된 3개 지구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확충으로 보성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수요 창출과 실천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친환경 보성군 농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종합대상

구례군이 14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구례군은 지난 17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 〈사진〉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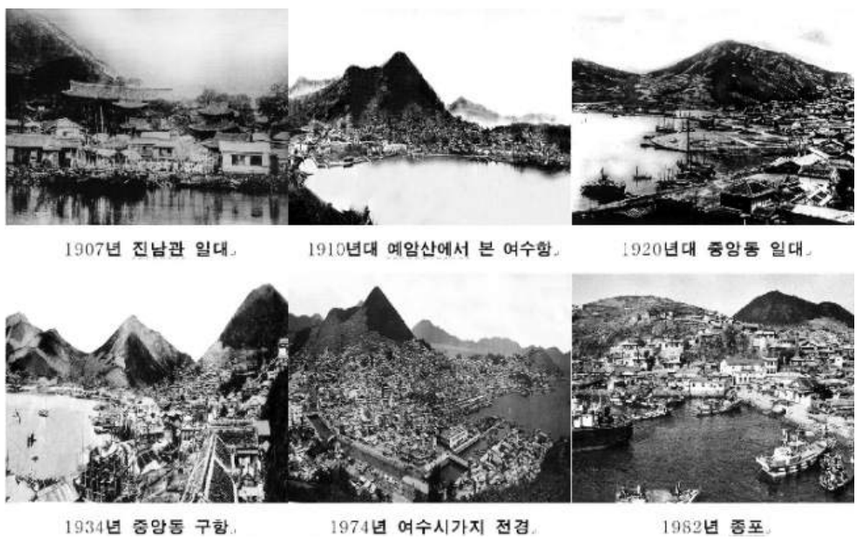
인터넷 소통지수(ICSI), 소셜 소통지수(SCSI), 콘텐츠 경쟁력 지수(CQI)를 토대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고객의 소리(VOC)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례군은 콘텐츠 경쟁력과 소셜 마케팅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종합지수 82.54점, 종합등급 AAA를 기록했다.

구례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채널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소식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했고 2020년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도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SNS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군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1907년 진남관 일대. 1910년대 예암산에서 본 여수항. 1920년대 중앙동 일대.
1934년 중앙동 구항. 1974년 여수시가지 전경. 1982년 종포.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 시민 참여 뜨겁다

1907년 진남관 흑백 사진 등 40여점 접수

여수시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에 시민 소장 자료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8월부터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 시민 대상,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여수항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개항됐다.

1907년 진남관 일대 흑백 사진에서부터 1970년대 중앙동 전경이 담긴 칼라 사진,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주화에 이르기까지 총 38점의 다양한 시민 소장 자료가 접수됐다.

특히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 시민 추진위원회 박정명 개항 100년사 발간 분과위원장이 여수항 옛 사진 17점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시민에게 제공 받은 자료를 우선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기념사업 전반에 두루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여수항과 관련한 추억 사진 등을 소장하고 있는 시민께서는 수집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우수작품으로 선정되면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해양항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